

# 「佃漁志」 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어지)

산 고문헌 가운데 3대 어보라 하면 담정 김려의 ‘우하이 어보’, 일성루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리고 풍석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중 ‘전어지’ 를 들 수 있다.

‘우하이어보’는 박준원 박사가, ‘자산어보’는 정문기 박사가 이미 번역본을 발간한 바 있으나 ‘전어지’는 그 동안 원문 그대로만 전해지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전어지’는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기 그지없는 고문헌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산계 원로이신 김명년씨가 수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번역을 했으나 책 자로는 완성되지 못했던 ‘전어지’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편집 발간함으로써 뜻있는 많은 수산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연안수역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감소, 노동력의 노령화 등으로 수산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게다가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의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은 수산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더욱 치열한 앞날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본 협회의 전어지 발간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그 이유는 ‘전어지’가 담고 있는 우리 수산업의 변천과정 때문이다.

수산업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잡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옴으로써 농업과 쌍벽을 이루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어지’에는 어류를 비롯, 해조류, 패류, 게, 새우류, 복족류 및 기타 수산동물 등 156여종의 명칭·방언·형태·습성·포획방법 등이 상세하게 망라돼 있다. 게다가 각종 동식물을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언급돼 있어 수산업의 이용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음도 알 수 있다.

‘전어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훑어가다 보면 우리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우리 수산업을 부

흥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계 환경을 깨끗이 유지 하면서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어촌지역을 쾌적하게 가꾸고, 수산물을 국민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나가야 하는 등의 능동적 대처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수산업이 처한 어려움은 이런 원론적인 문제점을 간과함으로써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오늘날의 생태계에 대해 전어지와 같은 고전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과정을 살핌으로써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전어지’의 번역 발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수산계 원로 김명년씨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수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전어지’와 같은 전문분야의 고문헌을 번역해 낸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은 수산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이를 번역할만한 한문학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산업에 관한 뜨거운 애정이 필요하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산인은 이런 삼박자를 모두 갖춘 김명년씨를 만나게 됨으로써 소중한 고문헌의 번역본을 책자로 손에 쥐게 되었다. 수산인들에게는 더 없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본 협회는 ‘전어지’를 학계, 국공립도서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

에 배포하면서 뿌듯한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본 협회보다 더 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간과해왔던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이번 ‘전어지’ 번역본의 발간이 도화선이 되어 훗시 알게 모르게 문혀진 수산업 관련 고문헌 자료의 발굴이 후학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모든 세상사가 그러하듯이 과거를 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